광남일보

광주 공예문화상품, 세계 시장 공략
광주디자인진흥원, 파리 메종&오브제서 전시 7

"에너지 전환·지역균형 발전·산업 재편"
우승희 영암군수, RE100 산단 유치 지원 요청 8

목포 삽진항, 정부예산 반영 '국가어항 첫발'
기본설계비 9억…어선 수용 능력 향상 등 10

천종수 광양테크 대표, 대통령 '표창'
직업능력개발 유공…"직원들과 함께 성장" 13

조간 제7917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9월 3일 수요일 (음력7월12일)

'광주 육상스타' 김국영 모티브 영화 개봉박두

GICON 지원 '전력질주' 10일 상영…광주 문화경쟁력 입증

한국 100m 기록을 보유한 광주 출신 육상스타 김국영 선수를 소재로 한 영화가 관객을 만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해 광주영화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인 영화 '전력질주'(감독 이승훈)가 오는 10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한다고 2일 밝혔다.

'전력질주'는 2017년 광주시청 소속 김국영 선수가 세운 남자 100m 한국 기록(10.07초)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이 기록은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한국 육상의 상징적 성취로 평가된다. 영화는 이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마지막 기회를 노리는 베테랑 선수와 가능성 높은 신예 스프린터의 도전을 그린다.

하석진, 이신영, 다현(트와이스), 윤서빈 등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 김 선수의 기록을 토대로 한 사실성과 영화적 상상력이 어우러져 스포츠 드라마 장르의 진정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번 작품은 GICON에서 운영하는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스토리집'을 통해 발굴된 시나리오를 영화제작지원사업으로 연결해 완성됐다. 지역 기반 공공지원으로 제작된 작품이 전국 배급망을 통해 상영되는 것은 광주 영화 생태계의 경쟁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입증하는 성과다.

영화 개봉에 앞서 6일 오후 1시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언론·관계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가 열린다. 이번 시사회는 이승훈 감독이 직접 참석해 작품에 담긴 의미와 제작 과정을 공유한다.

GICON 관계자는 "광주시는 매년 독립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하며 창작자들의 실험적 시도가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전력질주 개봉은 광주가 지역 영화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광주시 '진퇴양난'

주민들 '위장 전입' 사실로 과반 동의 조건 충족 못해

시, 선정 절차 잠정 중단 2030년 가동…대안 모색

광주 광산구 삼거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주시가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오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소각장이 필요하지만, 관련 절차가 멈춰서면서 광주지역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제19차 회의를 갖고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 일원(8만3700㎡)을 선정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는 3차 공모 평가 대상 4개소(서구 서창, 광산 동산·삼거·지평)를 대상으로 현장 답사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데 이어 후보지 기준인 5개 분야 23개 항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광주시는 오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023년부터 두 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지난해 8월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 추진'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해 4개 후보지를 신청받아 최종 순위를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일부 주민들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산경찰서는 이날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 주민 1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각장 예정 부지는 인근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고, 이 조건을 통해 88세대 중 48세대(54%)가 동의해 최소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하지만 위장 전입자로 확인된 12명을 제외하면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삼거동을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정 부지로 선정하고 2029년 말까지 완공하려했던 광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됐다.

올해 안으로 입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쓰레기 소각장을 기한에 맞춰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광주시는 경찰 수사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일 오후 장성 무궁화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으며 막바지 여름 날의 추억을 남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 의료현장 과부하 '숨통'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366명 복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면서 광주지역 의료 현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모집한 전공의 244명이 의료 현장에 투입됐다.

전남대병원은 올 하반기 인턴 108명, 레지던트 1년차 102명, 레지던트 상급년차 180명 등 전공의 총 390명에 대한 모집공고를 냈고, 244명(지원율 62.6%)을 충원했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인턴 35명, 레지던트 1년차 45명, 레지던트 상급년차 79명 등 전공의 159명을 채용하기 위한 모집에 나섰고, 총 122명(지원율 76.7%)을 선발했다.

두 대학병원 모두 이번 전공의 복귀로 의료 현장의 과부하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료 현장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총 7984명을 선발, 기존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305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기준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으로, 지난 6월 2532명에 그쳤던 전공의 규모와 크게 비교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77.2%,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74.3% 수준을 회복했다.

과목별로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정부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인 8개 과목이 예년 대비 70.1%, 그 외 과목은 예년 대비 88.4% 수준이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모집으로 의료 현장의 과부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소 또는 통폐합했던 진료과목과 병상, 응급실 운영도 조만간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